

금호산업·타이어 ‘홀로서기’ 성공 ... 향토기업 영광 되찾는다

1
금호아시아나그룹
2015년 제2창업 선언

향토기업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새해 ‘제2창업의 해’로 선언했다. 주력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및 자율협약 등을 종료하고 경영 정상화에 들어간 만큼 2015년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의미다. 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나는 그룹 해체 위기를 맞기도 했다. 2006년엔 대우건설, 2008년엔 대한통운을 인수하며 단번에 재계서열 10위권까지 올랐지만 무리한 인수합병이었다. 하지만 5년 여간 뼈를 깎는 자구책과 경영 전반의 노력으로 이제 금호아시아나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포부다.

계열사 뼈 깎는 자구책 워크아웃 졸업 경영 정상화 완료 ... 재도약 기틀 마련 채권단 지분 되찾을 자금 마련이 관건

◇계열사 경영정상화 완료=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사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룹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금호산업은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이 이어지면서 경영사정을 개선시켰다. 워크아웃 결정 당시만 해도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부채비율을 줄인 끝에 최근엔 501%까지 줄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금호산업은 채권단으로부터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사실상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다만 채권단은 워크아웃 종료 뒤 채권단 지분 매각 시 공개매수 이슈가 있어 불가피하게 ‘조건부 워크아웃 졸업’을 승인했다.

자율협약 종료 뒤 주가가 상승중인 아시아나항공 역시 지난해 12월 초 자체 신용을 통한 자금 조달과 잔여 채무 상환계획 수립 등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자율협약을 졸업했다. 특히 전체 비용 가운데 35%를 차지하는 유류비가 최근 유가 하락 덕분에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다 중국인 입국자 증가와 항공 화물시장 회복세 등의 영향도 있따라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2월 말 워크아웃을 졸업한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이 졸업 요건으로 제시했던 조건을 대부분 충족시켰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 2조6000억원, 누적 영업이익 2762억원을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경성이의 실현 및 안정적 순이익을 유지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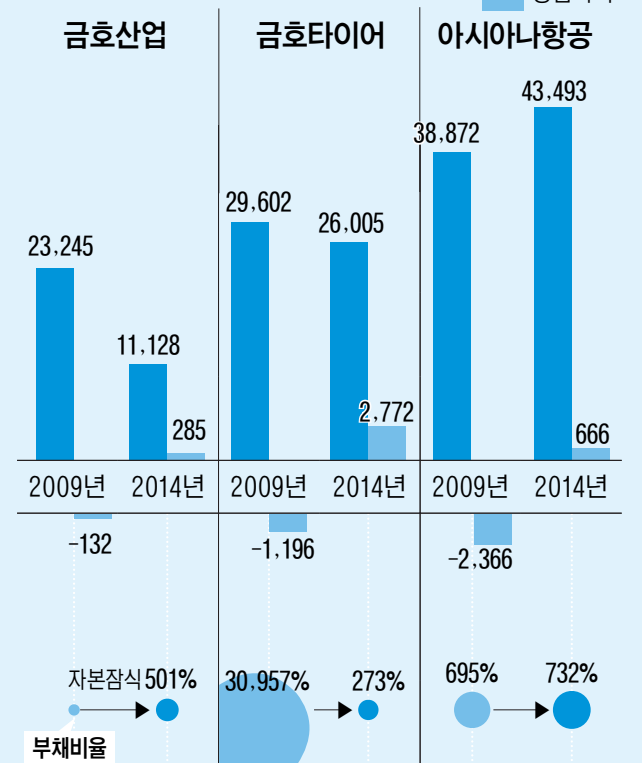
망이다. 자체 신용으로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했으며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도 BBB로 올라 5년 간의 워크아웃을 마치고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한때 800%대를 넘었던 부채비율 역시 채권단이 제시한 200% 이하를 지난해 분사 기준 169%로 달성했고, 지난해 3분기 기준 149%로 크게 떨어뜨렸다.

금호고속 인수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해 말 이뤄질 예정이었던 금호고속 매각 본업참여 인수 후보들의 참여 저조와 실사 진행이 늦춰지면서 올해로 연기됐다. 하지만 그룹의 모태기업인 데다 알짜기업인 만큼 기필코 되찾아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IBK투자증권-케이스트론파트너스의 향후 행보가 중요하겠지만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금호아시아나에게 유리한 게임인 것은 분명하다.

◇경영 안정화 자금 마련이 관건=그룹 재건을 위해 아직 남아야 할 산은 많다. 계열사들의 워크아웃 종료로 경영 정상화는 이뤄졌지만 이제 박 회장이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을 다시 사와야 한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이자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금호산업을 되찾는 일이다. 채권단은 현재 금호산업 지분의 57.6%를 가지고 있다. 채권단은 내년 1월께 매각공고를 낼 예정이다. 박 회장은 채권단 지분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호산업을 반드시 되찾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해 온 만큼 다양한 방안을 놓고 연구중인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이 박 회장의 손에 들어오면 그룹 재건의 골격은 갖춘 셈이다. 다음으로 금호타이어 주식 42.1%와 사모펀드가 소유중인 금호고속을 되찾아야 한다. 금호아시아나는 보유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주력회사들을 박 회장 등 오

■ 금호아시아나그룹 주력 3개사 실적 (단위: 억원, 2014년은 3분기 누적)



너 일가가 되찾아오는 것은 내년 재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3개 계열사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역 경제계는 금호아시아나가 광주와 전남에 뿌리를 둔 기업인 만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역민의 성원이 더해져야 한다는 바람도 전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대기업 가운데 본사가 광주에 있는 유일한 기업인데다, 광주 최대의 문화공간인 유·스퀘어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향한 애정은 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자·강·불·식

〈自強不息〉

금호아시아나 2015년 경영방침



박삼구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5년 경영방침을 ‘자강불식(自強不息)’으로 정했다.

지난해 말 주력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이 잇따라 경영정상화를 완료한 만큼, 새해 그룹이 추구할 가치로 ‘끊임없는 자기 노력’을 내세웠다.

주역 권좌편에 나오는 ‘자강불식’은 “최선을 다해 힘쓰고 가다듬어 쉬지 아니하며 수양에 힘을 기울여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중국 명문 대학인 칭화대학교 교훈 역시 ‘자강불식 후덕재물(自強不息 厚德載物,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으며 덕을 두텁게 해 만물을 포용한다)’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015년은 제2창업을 완성한 뒤 새롭게 시작하는 원년으로, ‘업계 최고 1등의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경영 목표를 위해 다시금 담금질을 할 때”라며 “강하고, 힘있고, 멋있는 금호아시아나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임직원과 계열사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15년을 ‘제2창업의 해’로 선언하고 그룹 재건에 나선다. 사진은 광주 서구 유·스퀘어 전경. 유·스퀘어는 금호터미널 소속으로 광주지역 최대 규모의 민간 문화시설이다.

〈금호아시아나 제공〉

새해 **행운** 맞이



거기인 뭐가 다를까?

소비자의 마음을 꿰뚫는 크리에이티브와 치밀한 전략과 단번에 마케팅전장의 승승장구-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랑은 기본부터 다릅니다.

전략적인 마인드로 시장분석과 브랜드 컨설팅까지 기획과 연계되어 참신하고 신선한 크리에이티브 언론사와의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광고의 파급력을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매체.

애드랑이 귀사의 든든한 전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랑
Total Marketing Communication

T. 062)385-1222 F. 062)385-1331

adrag
Total Marketing Communication

- 기획: 광고기획, 마케팅 컨설팅, 브랜드 컨설팅, 시장조사 등
- 제작: 광고제작(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홍보물 제작(카드뉴스, 리플렛, 전단지 등)
- 매체: 방송·신문광고, 대형, 홍보대행, 옥외광고, 온라인광고, 모바일광고 등
- 기타: 사인물, 영상제작, 이벤트, 판촉물 등